■공포의 AI 확산, 전남 영암서도 발생

못믿을 방제… 재앙으로 번지나

닭·오리 18만마리 살처분 불구 계속 번져

전남도 "확산 막아라" 비상근무체제 돌입

전북지역 일대에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는 가운데 영암 신북면 양계농장에서 전남지역에서는 올 들어 처음으로 AI 감염이 의심되는 닭의 폐사가 발생해 AI 비상이 걸렸다. 전북발 AI 공포가 전남지역 닭·오리농장에 확산되고 있다.

겨울철 가금류병인 AI가 4월 중순에 접어들었는 데도 주춤해지기는 커녕 오히려 확산되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방역당국 비상=전남에서는 지금까지 AI가 발생한 정읍 등과 직간접으로 관련있는 오리·닭 등 18만마리를 예방차원에서 살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양계농장에서 AI 증세 닭이 발견됨에 따라 AI 감염 및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전북 정읍 영원면에서 네번째 AI 발병이 확인되고 AI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는 등 방역당국의 살처분 확대와 방역 강화에도 불구하고 AI는 오히려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일 신고된 정읍 영원면 소재 오리농가의 폐사 원인을 조사한 결과 'H5형' AI 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고병원성 AI 발병이 최종 확인된 곳은 전북 김제와 정읍 영원면 및 고부면, 다시 영원면 농가까지 모두 네 곳으로 늘었다.

◇전남도 대책=전남도는 영암 신북에서 AI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전남도는 전북지역의 AI 확산추세를 예의 주시해 왔으나 이번 영암 농장에서의 감염 확인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전남도는 이에 앞서 지난 8일 정읍 영원면 AI 2차 발생 농장을 출입한 차량 5대가 방문한 5개 시군 9개 농장의 14만9천100마리의 오리·닭을 예방적 살처분했다.

전남도는 AI 살처분 대상 농가들의 보상금을 빠르면 10일부터 총 보상금(추정액 4억5천만~5억원)의 50% 범위에서 가지급한다. 도에 따르면 살처분 보상금 지급 대상은 나주 화인코리아에서 매몰조치한 3만900마리와 예방적 살처분을 했던 9농가의 14만9천100마리 등 모두 18만 마리다.

도는 농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 지난 2006년 예방적 살처분을 했던 사례를 기준으로 삼아 50%를 가지급한 뒤 시·군 평가반의 정확한 평가를 거쳐 가격이 산정된 이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살처분 보상금 특별국비 50억원이 배정된 상태이며 도는 이번 살처분 보상금으로 약 7억~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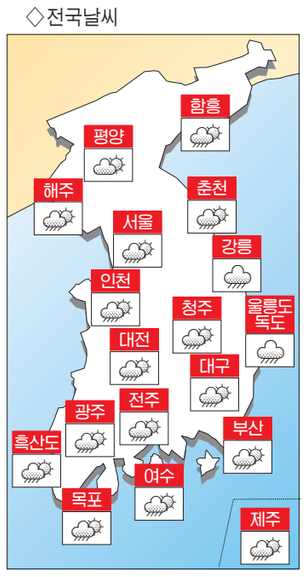
구름 사이 햇살

흐리고 비가 온 후 개겠다.

4월 10일 (음 3월 5일) 날씨

◇전국날씨

광 주	비 후 갬	10~19℃
목 포	비 후 갬	10~15℃
여 수	비 후 갬	11~16℃
완 도	비 후 갬	10~16℃
구 례	비 후 갬	9~18℃
해 남	비 후 갬	10~16℃
장 흥	비 후 갬	10~17℃
고 흥	비 후 갬	11~17℃
순 천	비 후 갬	9~18℃
영 광	비 후 갬	9~15℃
진 도	비 후 갬	10~17℃
전 주	비 후 갬	10~19℃
남 원	비 후 갬	10~19℃
흑산도	비 후 갬	7~9℃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5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2.0~4.0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2.0~4.0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2.0~4.0m

목 포 밀물 05:08 17:02 썰물 10:12 22:14
여 수 밀물 11:39 --:-- 썰물 05:43 17:47

▲해뜸 06:07 ▲해짐 19:01 ▲달뜸 08:40 ▲달짐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1(금)	12(토)	13(일)	14(월)	15(화)	16(수)
날 씨						
최저/최고	8/23	7/23	9/17	7/23	8/23	9/17

"엄마가 휴대폰 사주지 않을까 싶어…"

초등생 납치 허위 신고 잇따라

경기도 안양 초등생 살해 사건 등 최근 잇단 아동 대상 강력범죄에 경찰이 잔뜩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허위 납치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 광주광산경찰에 아동 납치 미수 사건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광주 모초교 5년 K(11)양의 부모. 이날 오후 3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모 초등학교 앞에서 학원을 가던 K양에게 40대 초반의 남성이 접근, "엄마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 중인데, 너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고 속여 납치하려 하자 K양이 이를 눈치 채고 도망쳤다는 것이었다.

K양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출동, 납치 미수 현장 주변의 CCTV 조사 등을 했으나 CCTV 영상에서 K양의 모습은 없었다. 이후 K양은 "납치 당할 뻔 했다고 하면 부모님께서 휴대전화를 사주지 않을까 싶어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광주 모 초교 3년 C(10)양은 봉고차에서 낯선 남성들에게 '납치될 뻔 했다가 풀려났다'는 이야기를 같은 반 친구들에게 전했다.

깜짝 놀란 친구들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긴급 출동했다. 당시 상황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 말문이 막힌 C양은 "친구들에게 자랑삼아(?) 했던 이야기인데 일이 커져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놨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5·18 사적지 봄맞이 대청소 광주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28주년을 맞아 지난 4일부터 부상자회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항쟁의 시발점이 됐던 전남대 정문을 비롯 5·18 사적지 26곳에 대한 정비에 나섰다. 전남대 정문 소공원에서 참가자들이 표지석 받침대 설치 및 쓰레기 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매월 둘째 주 목요일 광주시청에 오면

무료로 건강 검진·상담 해줍니다

매월 둘째 주 목요일 광주시청을 방문하면 건강검진과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이달부터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을 '노후까지 건강하게! 내 건강수준 알기의 날'로 정하고 시청을 찾는 시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1층 시민홀에서 무료 검진과 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해 혈압, 혈당, 체성분 등 기초 검진을 실시키로 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한국건강관리협회 등과 연계해 혈액(간기능, B형간염, 고지혈증)은 물론 암, 골다공증 등 주요 질병에 대한 무료 검진도 병행한다.

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검진 대상자에게는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정밀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해 건강수준에 맞는 운동요법과 음식물 모형을 이용한 섭취량 시연 등의 체험기회도 제공한다.

10일과 24일에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전남대 비뇨기과 교수팀이 50~80세 남성을 대상으로 전립선암 무료 검사와 상담을 실시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여수 총선 당선자 소유 건물에 불

9일 오전 8시40분께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081번지 화성산업 내 정미소에서 불이나 내부 360㎡와 정미소 기계를 태워 소방서 추산 7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30여 분만에 진화됐다.

화재 당시 정미소 안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바로 옆 제재소에 불이 옮겨 붙지 않아 대형화재를 면했다. 불이 난 정미소 건물은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여수 을 선거구의 후보로 나서 당선된 주승용 의원 소유다.

경찰은 정미소 천장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누전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왜 서울말만 표준어인가"

탯말두레 2년째 위헌 소송

"왜 서울말만 표준어이고, 표준어로만 공부해야 하나요."

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역말 연구모임인 '탯말두레'가 2006년 5월 23일 "지역 언어의 특성과 기능을 무시한 채 서울말만 사용토록 한 현행 정책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표준어 정책에 대한 위헌소송이 2년째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전국 각 지역의 초·중·고교생과 학부모 등 123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표준어를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한정한 표준어규정 및 표준어로 교과서를 만들도록 한 국어기본법 등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사전심사 결과 사건을 각하하지 않고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에 회부했으며 2006년 7월 문화관광부로부터 의견을 받은데 이어 올해 3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의견을 회신 받았다.

탯말두레 간사인 박원석씨는 "교통과 미디어·인터넷의 발달로 지역어가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 정서와 뿌리가 담긴 말이 사라지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문화유산 보전차원에서라도 어릴 때부터 사투리를 교육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심야에 女性상대 날치기 광주서부경찰 2명 검거

광주서부경찰은 9일 심야에 여성을 폭행한 뒤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김모(24)씨 등 2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이날 새벽 2시5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상가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타려던 A(여·25)씨를 폭행한 뒤 손가방을 낚아채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전 주차장 인근 편의점에서 생수 1병을 구입한 것을 CCTV로 확인한 뒤 주변에 버려진 생수병을 주워 지문을 채취해 이들을 붙잡았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